

어린이 안전사고, 걸음마기(1~3세)에 가장 많이 발생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2. 5. 24.)

 가정 내, 실외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최근 5년간(2017~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는 총 109,132건으로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24,000건 이상 수집되는 등 매년 15,000건 이상 접수
- 어린이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감소했으나 가정 내, 실외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연도별 위해정보 접수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	25,699	24,097	24,971	18,494	15,871
전년대비 증감률	(14.0)	(△6.2)	(3.6)	(△25.9)	(△14.2)
병원 수집 건수	24,796	23,415	24,354	17,612	15,343

※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95% 이상이 병원에서 수집됨.

- (발달단계별) 최근 5년간 ‘걸음마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도 ‘걸음마기’가 6,485건 (40.9%)으로 가장 많았고, ‘학령기’ 3,867건(24.3%), ‘유아기’ 3,850건(24.3%), ‘영아기’ 1,669건 (10.5%) 순이었음.

[발달단계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취 학 전	영아기 (0세)	2,340 (9.1)	1,986 (8.2)	2,167 (8.7)	1,720 (9.3)	1,669 (10.5)
	걸음마기 (1~3세)	12,186 (47.4)	11,678 (48.5)	11,495 (46.0)	7,933 (42.9)	6,485 (40.9)
	유아기 (4~6세)	5,907 (23.0)	5,586 (23.2)	5,669 (22.7)	4,438 (24.0)	3,850 (24.3)
	소계	20,433 (79.5)	19,250 (79.9)	19,331 (77.4)	14,091 (76.2)	12,004 (75.7)

- － **(품목)** 최근 5년간 ‘가구 및 가구설비’,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스포츠 및 취미용품’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매년 유사한 추이로 나타남.
- － 특히, ‘완구 및 게임용품’의 경우 2020년부터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2,022건 (12.7%)을 차지함.

[품목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대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구 및 가구설비	8,216	(32.0)	7,547	(31.3)	6,990	(28.0)	3,745	(20.3)	3,448	(21.7)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4,495	(17.5)	4,389	(18.2)	4,334	(17.4)	3,934	(21.3)	3,205	(20.2)
스포츠 및 취미용품	3,093	(12.0)	2,680	(11.1)	3,673	(14.7)	2,809	(15.2)	2,613	(16.5)
완구 및 게임용품	1,881	(7.3)	1,937	(8.0)	2,473	(9.9)	2,478	(13.4)	2,022	(12.7)
건물, 시설 및 서비스	2,228	(8.7)	2,026	(8.4)	1,718	(6.9)	769	(4.2)	635	(4.0)

- － **(원인별 상위 품목)** ‘영아기’(0세)의 경우 ‘추락’이 53.4%(9,882건 중 5,27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외의 연령에서는 ‘미끄러짐·넘어짐’이 1위를 차지함. ‘영아기’(0세)의 ‘추락’ 사고 품목으로는 ‘침대’가 3,441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파’ 500건(9.5%), ‘유모차’ 264건(5.0%) 등의 순임.
- － ‘미끄러짐·넘어짐’의 경우 발달단계별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걸음마기’(1~3세)는 ‘목재마루재’ 2,967건 (22.0%), ‘비닐바닥재’ 2,876건(21.3%),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324건(17.2%)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음.
- － 반면, ‘유아기’(4~6세)는 ‘킥보드’ 1,703건(20.4%),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1,257건(15.1%), ‘비닐바닥재’ 957건(11.5%) 순이었으며, ‘학령기’(7~14세)는 ‘어린이 자전거’ 2,048건(25.3%), ‘킥보드’ 993건(12.3%),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664건(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위해원인별 상위품목(소분류) 현황(2017~2021년)]

(단위 : 건, %)

구분	영아기 (0세)	구분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추락 53.4% (9,882건 중 5,279건)	침대	미끄러짐·넘어짐*	목재마루재	킥보드	어린이 자전거
	3,441 (65.2)		2,967 (22.0)	1,703 (20.4)	2,048 (25.3)
	소파		비닐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킥보드
	500 (9.5)		2,876 (21.3)	1,257 (15.1)	993 (12.3)
	유모차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비닐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64 (5.0)		2,324 (17.2)	957 (11.5)	664 (8.2)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